

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1. 2. 24.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김 규 식

1. 발 의 자: 김현주 의원

2. 제안이유

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3조~제5조)

다.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(안 제6조~제7조)

라.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나. 협조부서: 복지정책과

다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라. 입법예고(2021. 2. 9. ~ 2. 14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,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시행규칙까지 총 10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,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으며
- 안 제5조와 제6조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고독사 위험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
- 안 제7조와 제8조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을 명시하고,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과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
- 안 제9조는 고독사 예방사업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회문화 변화 등에 따른 자발적, 비자발적 독신이 늘어나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¹⁾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,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

1) 1인 가구 비율: 2000년도 15.5% → 2010년 23.9% → 2019년 30.2%(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)

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‘고독사’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이 미비하다 보니, 정부는 지난해 3월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여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

- 현재 우리 구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」를 시행 중에 있으나 조례 적용 대상이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한되어 있어 사회로부터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, 본 조례안과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동시에 해당 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 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, 본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, 의료 혜택, 안부확인,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여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.